Macro

11월 소비자물가: 전월보다 더 높아진 물가 상승률

Economist &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
dongrak.kong@daishin.com
Economist RA 이지은
jieun.lee33@daishin.com

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3.7% 상승하며 예상치 상회

- 11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.7% 상승(전월대비 0.4% 상승)하며 지난 10월(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)에 비해 0.5%p 상승했다.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.3% 상승(전월대비 0.1% 상승)했으며,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.9%(전월대비 0.1%) 상승했다.

- 소비자물가를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컸던 부문은 교통(+12.9%), 식료품/비주류음료(+3.7%)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(+4.6%), 음식 및 숙박(+3.8%)였다. 이들 네 부문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각각 1.38%p, 0.89%p, 0.2%p, 0.51%p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80% 이상을 차지했다.

-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(전년동월대비 +7.6%, 전월대비 +0.6%)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. 농산물 중에서도 채소류, 축산물의 물가지수가 큰 폭의 상승률 보였다. 공업제품 부문(전년동월대비 5.5% 상승)은 석유류 물가(전년동월대비 35.5% 상승)에 힘입어 상승폭 확대가 지속되었다.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2% 상승하면서 2% 상회하는 흐름 이어졌다.

농산물 및 석유류 물가 등 공급 측 물가 상승이 견인한 상승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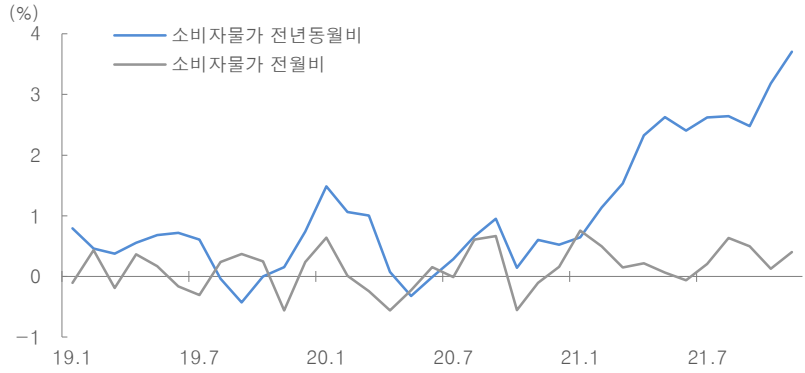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 이후 8개월 동안 2% 이상의 상승률 꾸준히 나타냈다. 특히 전월인 10월 소비자물가는 3%를 상회한 데에 이어 11월에도 전년동월대비로 3%를 웃도는 소비자물가를 기록했다. 이는 1)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의 급격한 상승세와, 유류세 인하가 11월 물가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과 2) 농/축/수산물의 물가가 평년보다 이른 한파에 따른 상승률 보인 점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.

-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3% 상승(전월대비 0.1% 상승)하면서 전월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2%를 상회했다. 농산물 및 석유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.1%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가 주로 농축산물 등 공급 측 가격변화에 연동되고 있으며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.

12월은 완만한 둔화 예상되나 높아진 수준의 물가는 유지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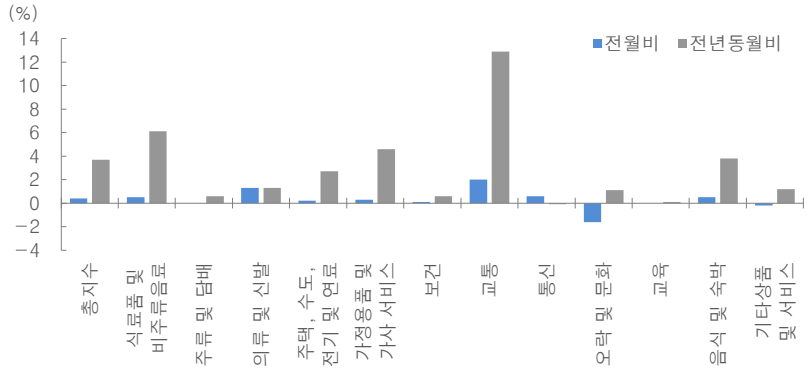
- 올해 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는 이미 한국은행 물가 연간 전망치인 2.3%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. 다만 12월 소비자물가는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흐름, 유류세 인하 효과를 감안할 때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.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공급병목 현상의 영향으로 높아진 물가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.

그림 1. 11 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3.7%, 전월비 0.4%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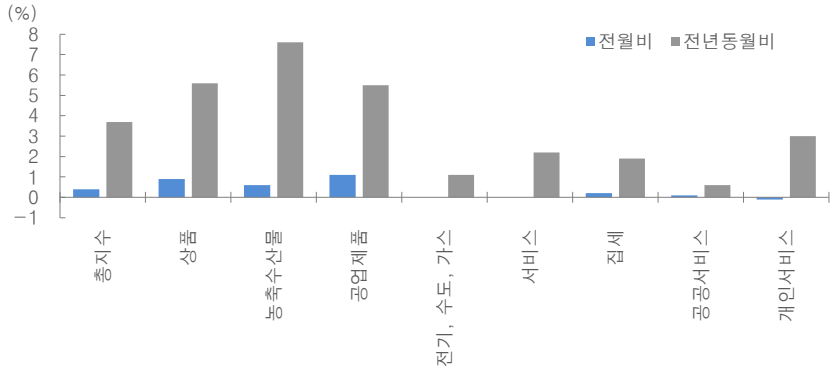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대신증권 Research&Strategy 본부

그림 2.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통계청, 대신증권 Research&Strategy 본부

그림 3.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통계청, 대신증권 Research&Strategy 본부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(작성자: 공동락, 이지은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